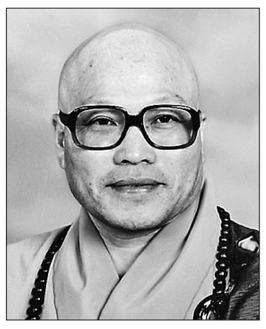
근현대 선지식 일타 스님 조명한다

한국불교학회, 11월 25일 추계학술대회

동곡문도회와 공동으로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 명인 동곡 일타 스님〈사진〉의 생애와 수행정신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와 동곡문도회(대표 혜국)는 공동으로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2층 회의실에서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 스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일타 스님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동아시아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오전 9시 50분 국제회의장에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선사상과 문화'(김재성, 능인대), '조선시대 선사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조사선에 대한 소고'(황금연, 동국대), '와비차에 나타난 선사상'(정영희, 동국대)이 발표되며, 같은 시간 2층 회의실에서는 '명상수행자의 촉각 주의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김성철, 동국대), '아함경에 나타난 아나반나념 수증상 연구'(정문용, 동국대), '상월조사의 불성개현사상'(황상준, 천태불교문화원)이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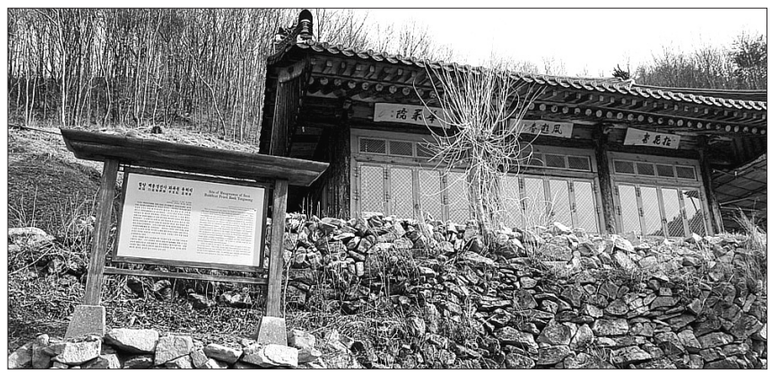
오후 1시 30분 국제회의장에서는 일타 스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이뤄진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동곡 일타의 생애와 수행'(김경집, 진각대), '동곡 일타율사의 계율사상'(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동곡 일타의 위상'(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동곡당 일타 큰스님의 교화행과 그 의의'(묘주 스님, 동국대), '일타의 자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김광식, 동국대), '동곡 일타 대종사의 선사상'(신규탁, 연세대) 등이다.

2층 회의실에서도 '혜영 대지도론소에 대한 기초적 고찰'(최은영, 금강대), '일두 정여창의 불교적 혐의와 유 · 불 회통론'(김종수, 세명대), '정보구조를 활용한 경전번역의 점검 방안'(박윤철, 경남대), '아난다에 대한 비판의식-소소계 범위를 중심으로'(원혜영, 동국대)가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화과원, 항일운동 역사적 거점"

최영호 동아대 교수
국가 사적 승격 보고서 주장
중장기적 학술연구사업 필요



백용성 선사가 설립한 함양 화과원 전경. 함양군을 중심으로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함양군 '화과원(華果院)'이 독립자금을 대던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항일독립운동과 불교개혁의 역사 · 문화적 거점공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화과원을 국가 사적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연구사업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양군은 11월 1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창호 군수, 손병규 부군수, 실과소장,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 승격 지정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았던 최영호 동아대 교수는 보고회에서 백용성 선사의 항일민족운동, 불교개혁실천운동, 화과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위상, 국가사적승격지정을 위한 단계적 방향을 차례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존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과원을 선농불교의 실천 '농장'으로 보는 제한적인 시각이 많아 아쉬웠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는 화과원에 담겨진 훨씬 방대한 다양한 역사 · 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화과원이 용성 선사가 활동한 핵심적 공간임을 전제하며 용성 선사가 3.1운동 후 고초를 겪고도 일제 통치에 포섭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용성 선사는 대각교 운동을 중심으로 1940년 입적할 때까지 불교 경전 번역과 출판에 매진했다.

최 교수는 "화과원은 백용성 선사와 당대의 선지식들이 선농 불교를 실천하면서 항일독립운동과 함께 불교의 개혁, 사원의 자립경제, 지역 빈민아동의 교육복지사업, 불교경전의 역경과 저술 등을 전개한 역사 · 문화적인 거점 공간"이라며 "이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지정받기 위해서는 단계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단계적 방향으로는 △원천 기록유산을 집대성하고 전산화 △관련 유적과 자료를 발굴 · 복원 △역사문화적인 위상 정립 및 대중화 △항일민족운동 체험교육현장으로 특화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창호 함양군수는 "화과원이 독립자금을 대던 자립농장의 역할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당대에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과 국가사적지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과 숙의해 중장기플랜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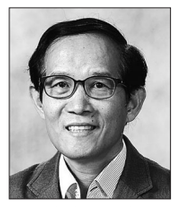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제6회 반야학술상에 고영섭 · 박찬국 교수

12월 4일 반야암서 시상식



고영섭 교수



박찬국 교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6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와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한국불교사 탐구〉를 출간한 고 교수는 저역상에,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 비교' 논문을 저술한 박 교수는 논문상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월정사탑돌이 道무형문화재 지정

강원도무형문화재 28호로… 탑돌이 중 유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의 탑돌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월 4일 열린 심의를 통해 월정사에서 봉행되는 '월정사 탑돌이'를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월정사 탑돌이'는 보유 단체 예능으로, 보유단체로는 '월정사탑돌이보존회'가 지정됐다.

'월정사 탑돌이'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을, 1969년 주지로 부임한 만화(萬化) 스님이 전통적 탑돌이를 복원해 체계화 시켜나갔다.

이후 '월정사 탑돌이'는 1980~90년대 침체기를 거치다가 2004년 오대산불교문화축전에서 시연한 이후 매년 봉행되기 시작했다. 2013년 이후에는 매월 보름과 초파일 등에 지속적으로 탑돌이 행사가 진행돼 왔다.

탑돌이는 월정사뿐만 아니라 '법주사팔상전탑돌이', '충주중앙탑탑돌이', '통도사탑돌이', '만복사탑돌이'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월정사 탑돌이'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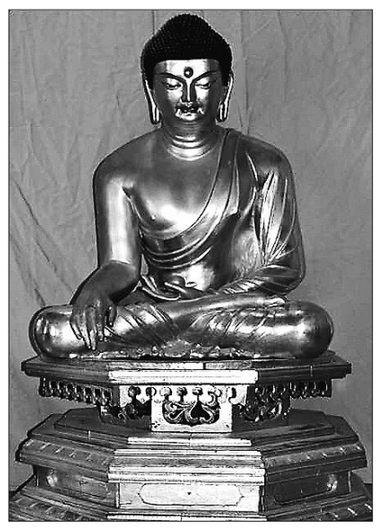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월정사 탑돌이의 시연 모습.

조성연대 논란 청량사 건칠불 보물된다

2009년 지정 신청 이후 7년만에 논란 일단락돼 탄소측정 결과 10세기 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지정 신청 이후 조성연대 논란이 있었지만, 탄소연대 측정으로 10세기 근작임을 확인됐다.

조성연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청량사 건칠불이 보물로 지정됐다. 2009년 보물 지정 신청 이후 7년만에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 연대 논란이 일단락되게 됐다.

문화재청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한 문화재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건칠불의 시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돼 왔지만, 보물 지정 신청 이후 얼굴이 석굴암 본존불과 흡사하고 20세기 기법으로 만들어져 근대 작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불상의 직물을 채취해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직물의 제작시기가 770~945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높이 90㎝, 어깨 너비 54㎝, 무릎 너비 72㎝ 크기이며, 1560년과 1715년에 중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번 보물 지정으로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과 함께 한국 건칠불의 시원이 되는 문화재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임진왜란 직후 벽암각성 문도 조각승들이 조성한 고창 문수사의 불보살상과 시왕상들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들은 보물 제1918호와 1920호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시왕상은 벽암각성 문도들이 주도해 조성된 것으로 당시 주요 조각승인 해심 등 15명이 참여했다. 모두 17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조각들로, 이 시기 불교 조각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 전기에 발행된 불교 경전인 양천구 본각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5~7과 은평구 심택사에 있는 〈묘법연화경〉 권4~7도 보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 공모

내년 2월 28일까지 '불교 현대화' 주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불교철학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8회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한다.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1부와 저서 2부, 논문의 경우 별쇄본 3부이며, 지원서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학술상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접수는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 부문은 교수 저술상 1000만원, 교수 논문상 700만원을 비롯해 비전임교수 논문상 500만원, 석 · 박사 과정 학생 논문상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등이다. 심사결과는 내년 4월 통보되며, 시상식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02) 719-2606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